

30대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분화, 표현된 정서가 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the Effects on Premarital Adult Children Aged Thirties Psychological Depression by Parents-Children Differentiation and Expressed Emotion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권미애
교수 김태현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Doctoral Course : Kwon, Mi-Ae

Professor : Kim, Tae-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differentiation, emotion over involvement(expressed emotion), and criticism between middle-or-old aged parent and child, by relation of emotional system, on child's psychological depress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77 premarital adult children over 30 years ol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mother-child differentiation was more perceptive than that of father-child. With psychological depression, expressed emotion within family and criticism were shown average score that was lower than middle score.

Second,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remarital adult children's sex, education, income, family type, father's education, and parents' marital status.

Third, a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higher level of psychological depression when the lower differentiation between parent-child, the higher expressed emotion over involvement within family and criticism.

Based 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the relation of emotional system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and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when individual and family counseling about parent-child are going on.

▲주요어(Key Words) : 미혼성인자녀(premarital adult child), 심리적 우울(psychological depression), 부모-자녀분화(parent-child differentiation), 가족정서 관여 및 비난(family emotional over involvement and criticism), 가족 내 표현된 정서(expressed emotion within family), 정서적 과다 관여(emotion over involvement)

1.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 사회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형태는 서구 핵가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반적인 가족의 형태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하게 변화되는 가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파생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가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대 서구의 핵가족은 서구의 가족이론과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가족의 중심적인 축을 부모-자녀관계 또는 형제자매관계보다 부부관계를 강조하는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으로써 성인기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는 소홀이 다루어져왔다. 특히, '자녀(child)' 라고 하면 아직 독립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나 또는 미혼자녀를 의미했으며, 성인기에 들어선 자녀와 그들 부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친밀성의 두 차원이 주요한 관심을 모아 왔다. 그러나 부모-성인자녀 간의 정서적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세대간의 친밀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세대간 독립성이나 분화의 양식은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어 왔다 (Bengtson & Roberts, 1993; 전영주, 1998; 재인용).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는 부부 중심의 애정이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지만, 자녀출산과 양육을 통해 부모 됨의 역할은 전 생애 가족생활주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발전론적 입장에서 자극을 주고받는 양방향관계이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

부모-자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태내환경에서부터 그 관계가 시작이 되며,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는 점 때문에 기초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운명체적인 특성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접촉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 때문에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특히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상호의존적인 구조속에서 비합리적이고, 비타산적이라는 측면 때문에 정서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가족생활주기 발달과정에 따라 그 관계의 양산도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부모자녀의 유대관계에 대한 개념은 Bowlby 와 Rutter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으며(Paeker, 1983), Parker(1979a)등에 의해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가

개발되면서 부모자녀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Parker, 1979a; Parker, 1979b; 이은희, 1999; 재인용). 최근 국내에서도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오동재·전성일·장환일, 1993; 최선남·최외선, 1995; 전성일 외, 1996; 최외선·백양희·이미옥, 1997),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 매개 변인에 의해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이은희, 1999).

이처럼 많은 가족학자들이 현대 가족을 상호 작용하는 인격체들의 결합(Burgess, 1926) 혹은 일련의 상호 관련된 체계와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총체로서 정서관계체계(Bowen, 1978)를 정의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남순현, 2000; 재인용). Anderson(1990)과 Sabatelli(1992)는 가족의 정서적 역동성에 관심을 갖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밝혔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도 또한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최근 사회적 배경을 통해 살펴본 부모-자녀관계의 특징 중 성인자녀의 만혼상태가 증가되고,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독신형태의 생활이 나타나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정서적, 경제적 시간 등을 공유하게 되는 기회가 증가되었다.

최근 국내 사회변화의 한 모습으로 2001년 통계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결혼률은 감소하고 30대 이상의 결혼률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 연령층의 결혼률을 보면, 남자(26~30세)는 1990년 226,500건에서 2000년 161,300건이며, 여자(24~28세)는 193,700건에서 165,600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 30~34세 연령층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은 1990년 73,800건에서 1995년 88,000건, 2000년 91,1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23,500건, 29,600건, 41,70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1).

미혼 연령층의 만혼화를 고려해볼 때, 중노년 부모와 30대 미혼성인자녀의 관계는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업을 마치고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가족 내에서 새로운 의무를 기대하기 때문에, 두 세대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노년 부모와 미혼성인자녀의 분화와 정서적 표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정서적 체계에 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자녀가 지각하는 정서적 특성과 영향요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초기의 중요한 특징이 개별성과 상대적인 의존성의 욕구라면, 중년기 이후 부모-자녀관계는 유사성과 의존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Cooney, 2000; 정현숙·유계숙, 2001). 이 시기는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규범과 가치로 인해, 가족원들이 비슷해지는 자동적인 연합, 즉 가족연합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서로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녀의 독립

이나 결혼을 통해 두 세대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며, 부모-자녀간의 경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인 경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Cooney, 2000).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안녕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들은 어린 시절의 부모-자녀 관계와 현재의 그들 관계가 모두 우울증이나 자기존중감과 같은 성인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Pearson et al., 1993; Bengtson & Roberts, 1993). 특히 과거 어린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자녀관계는 현재의 부모-성인자녀관계의 질과 상관없이 성인자녀의 우울증이나 자기존중감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Pearson et al., 1993).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성인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더 관련 있음이 지지되었다(Umberson, 1992; 전영주, 1989)

이러한 세대간 관계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 과정의 한 부분인 중노년 부모와 30대 미혼성인자녀사이에 형성되는 상호 정서체계인 부모-자녀분화, 표현된 정서 관계를 살펴,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 우울의 상태를 파악하여 봄으로써 중노년 부모와 30대 미혼성인자녀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울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며, 특히 우울의 원인이나, 발병요인, 환경적 위험 요소 등에 관한 연구들은 우울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로서 연구되어 왔지만, 가족 내 부모-자녀분화와 표현된 정서가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우울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은 선행연구를 통해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자녀 간 가족 내 표현된 정서는 경험적 연구에서 얻어진 경험적 구성 개념으로, 이를 우울의 병인론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것은 표현된 정서와 우울간의 관계에 대해 인과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가족 내 표현된 정서와 관련하여 적절한 중재의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연구문제 1 >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분화와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정서적 과다관여, 비난), 심리적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 연구문제 2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중노년 부모-미혼성인자녀의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정서적 과다관여, 비난), 심리적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 < 연구문제 3 >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노년 부모-미혼성인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정서적 과다관여, 비난)가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중노년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안녕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들은 어린 시절의 부모-자녀 관계와 현재의 그들 관계에서 모두 우울증이나 또는 자기 존중감과 같은 성인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Pearson et al., 1993; Bengtson & Roberts, 1993). 특히, 과거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자녀 관계는 현재의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질과 상관없이 성인자녀의 우울증이나 자기존중감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Pearson et al., 1993).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은 아버지와 관계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성인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지되었다(Umberson, 1992).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문헌들은 몇 가지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부모-자녀간의 연령 등을 보고해 왔다. 첫째, 성인 딸들이 아들들보다 부모와 정서적으로 더 가깝고 더 자주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돕는다고 한다(Shehan & Dwyer, 1989). 특히 어머니와 성인 딸의 애정 결속력은 모자간이나 부녀, 또는 부자간보다 강하다(Rossi & Rossi, 1990). 둘째, 성인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대간 갈등이 적어지며 관계가 개선된다(Suitor & Pillemer, 1988).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연령 증가 자체보다 자녀의 성인으로써의 지위변화가 부모-자녀간의 관계 개선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ichards et al., 1989). 셋째, 부모와 자녀의 연령차가 적을수록 일반적으로 관계가 더 친밀하다고 알려져 있다(Hag-estad, 1987). 출생 순위가 위인 성인자녀들은 동생들에 비해 부모와 정서적으로 더 가깝다(Shehan & Dwyer, 1989). 또한 자녀를 늦은 연령에 갖은 어머니들일수록 중년기에 자녀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연령차가 클수록 덜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Rossi & Rossi, 1990). 넷째, 상황적인 스트레스도 부모-성인자녀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성인자녀의 심리적 안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Lavee et al., 1987). 일부 연구자들은 스트레스가 세대간 관계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미분화된 가족관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상처받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Bowen, 1978; Green et al., 1986; Lewis, 1990; 전영주, 1998; 재인용).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관계이다. Beck(1978)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성인기의 관계형성 능력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다. 부모-자녀 관계를 모체로 하는 가족관계가 긍정적이고 성장을 고무하는 것일 때 이러한 가족관계는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Ainsworth, 1989). 반면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일 경우

미래의 심리적 혼란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개인의 능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Bagarozzi & Anderson, 1989; Bowen, 1978; 박준화, 1999).

Umberson(1992)은 24~86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간 관계 연구에서 세대간의 심리적 긴장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세대간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심리적 불편함(psychological distress)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 과정의 세대간 전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덜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가족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점차 성인 남자들이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인식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아버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남순현, 2000).

이와 같이 선행 연구결과들을 볼 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자녀의 연령이 아동이거나 또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대부분 연구되어 온바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성장한 미혼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정확한 표현 능력을 지니고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성인을 연구하여 중노년 부모와의 정서체계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모-자녀간 정서체계와 심리적 우울

1) 부모-자녀간 가족분화와 표현된 정서체계

가족분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체계변인 또는 관계변인으로써의 '가족분화'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Allison & Sabatelli, 1990; Chun & MacDermid, 1997; Sabatelli & Anderson, 1991). 재개념화 작업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로 잘 알려진 Bowen(1978)의 분화는 그 개념에 연결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화, 자율성, 독자성, 독립성 등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온 경향이 있다(Friedman, 1991). 예를 들어 '분화(differentiation)'와 '자율성(individuation)' 간에는 동일한 의미의 개인 변인으로 개념적 혼동이 있어 왔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써의 자율성과 동시에 연결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분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Sabatelli & Anderson, 1991).

둘째, 선형적인 분화모델은 높은 수준의 분화가 정서적 자율성의 발달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방적 모델의 가정 하에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서구권 문화에 비해 비서구권 문화의 가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화를 보여주게 된다. 이는 Bowen(1978) 이론이 지적체계(intellectual system)와 감정체계(feeling system)를 상호 경쟁하는 입장으로 보고 분화에 이르는 근본적인 경로로써 전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Knudson-Martin, 1994). 따라서, Bowen(1978) 이론과 그 개념은 남성 위주로 정

의된 현실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의 경험을 왜곡한다는 feminist들의 비판이 제기되어왔다(Bograd, 1988). 최근의 여성발달 연구자들과 가족치료학자들은 '성숙(maturity)'은 자아와 타인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고 높은 수준의 분화는 지적체계와 감정체계의 기능이 통합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Knudson-Martin, 1994). 즉, 높은 수준의 분화는 정서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친밀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며, 긴장과 불안의 원천은 지나치게 높은 연결성의 역기능(융합)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높은 분리성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Knudson-Martin, 1994; 전영주, 1998).

이러한 이유로 '가족분화'를 독립성, 자율성 등의 개인내적(intra psychic) 변인들과 구분되는 가족체계 변인으로 규정하고 "연결성(친밀감)과 분리성(자율성)의 균형의 정도를 조장해주는 가족 내 거리규제(distance regulation) 유형 또는 상호작용 유형"으로 개념화하였다(Sabatelli, & Anderson 1991; Gavaazzi & Sabatelli, 1990). 여기서의 연결성은 의미 있는 타인과 정서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반대 개념은 분리성이 아닌 단절이 된다. 또한 분리성은 의미 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반대 개념은 밀착(enmeshment, fusion)이 된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높은 연결성과 높은 분리성을 동시에 가질 때만이 보장되며, 높은 연결성과 밀착 또는 높은 분리성과 단절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된 체계 변인으로서의 분화는 정서적 연결성과 분리성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며, Bowen(1978) 이론의 감정체계와 관련된 기본 가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설명력을 갖게 된다(Chun & MacDermid,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분화가 적절히 이루어진 부모-성인자녀 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연결성과 분리성을 보장해주는 가족 하위체계가 되는 반면, 적절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성인자녀 관계는 지나친 분리나 밀착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전영주, 1998)

높은 가족분화수준은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이 최적화된 상태이므로,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들에게 있어서 자율감과 상호존중,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 발달단계에 적절한 과업수행을 하며, 가족간의 대화는 공감과 긍정적 존중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긴장, 위기에 대해서도 가족의 맥락 내에서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결국,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친밀감과 자율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개인적 적응을 도모하여 개인과 가족의 발달적 변화와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정도는 분리와 연결성간에 허용성이 낮아 불균형을 초래한다. 즉, 밀착(enmeshment) 혹은 과잉 분리(disengagement)된 거리규제 패턴을 보인다. 거리규제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가족체계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유발되어

삼각관계와 융해(fusion)가 나타난다. 타인에 대한 자율감과 독립된 개체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으며, 발달단계에 적절한 목표 지향적 과업 수행과 적응적 발달과업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개인적 부적응과 함께 사회적·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분화는 근원가족 내에서 개인이 정서적 연결성과 분리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하는데 관련되는 가족수준(family-level) 변수로 개념화되어진다(Sabatelli & Anderson, 1991; 차정화, 2001; 재인용).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독립성, 자율성 등의 개념으로 분화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정서적 연결성과 분리성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상호작용 되는 정서체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자녀간 표현된 정서와 심리적 우울(Depression)

가족 내 표현된 정서와 우울증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살핀 것은 Vaughn & Leff(1976)의 표현된 정서와 정신분열증의 재발에 관한 연구에서였다. 이들은 정신분열증의 재발과 우울증의 재발을 비교하면서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정신분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의 재발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우울증 환자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보다 비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증 집단이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에 비하여 더 낮은 비난의 횟수에서 재발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비난에 더 민감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차지연, 1999). 국내에서도 가족 내 표현된 정서와 관련된 연구는 정신분열증 재발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것이 있지만(연규일, 1992; 장명진, 1989; 정영철·정애자·황익근, 1988; 정운석, 1998), 우울증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들다(차지연, 1999).

Brown등(1972)은 표현된 정서는 가족 내의 정서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반응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아닌 특정인과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가족의 특징적 성격으로 보았다. 이는 표현된 정서의 양이 가족 내 상호작용 질의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표현된 정서가 낮은 가족은 차분하고, 감정입을 잘 하며, 존중해 주는 반면 표현된 정서가 높은 가족은 걱정과 성가심을 잘 표현하고, 공감적이지 않으며 정서적 지지를 보이지 않는다(Leff & Vaughn, 1985). 또한 표현된 정서가 높은 가족은 참견을 많이 하고(Hahlweg, Goldstein, Nuechterlein, et al., 1989; Miklowitz, Goldstein, Fallon, et al., 1983; Strachan, Goldstein, & Miklowitz, 1986; Szmukler, Berkowitz, Eisler, et al., 1987; Valone, Norton, Goldstein, et al., 1983), 가족 면담에서 말을 더 많이 하고 효과적으로 듣지 못한다(Kuipers et al., 1983). 따라서 표현된 정서가 높은 가족은 상호작용에서 융통성이 적고, 강압적이고, 긴장되어 있으며(Hubschmid & Zemp, 1989), 대인관계의 반응은 일관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MacCarthy, Hem-

sley, Shrank-Fernandez, et al., 1986; 차지연, 1999; 재인용).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우울상태는 무가치한 느낌, 우울한 기분, 죄책감, 흥미의 상실, 집중·기억력의 감소,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과 신체적으로 식욕이나 몸무게의 변화, 수면의 변화, 피로 등의 증상들을 수반하는 정신병리(Beckham, Leber & Youil, 1995; 차지연, 1999; 재인용)로 정서변화의 넓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이중훈, 1995).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우울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우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여 다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울은 때로 일상적 생활을 해나가기 어렵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한 정신병리로 취급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며, 특히 우울의 원인이나 발병 요인, 환경적 위험 요소 등에 관한 연구들은 우울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차지연, 1999).

부모자녀관계가 우울 등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준 최근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주목했는데,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eissman & Klerman, 1981). 국내 연구에서도 남녀차이를 비교한 정승환(1998)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과보호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지각했고, 아버지의 돌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지각했다. 또한, 남성은 부모의 돌봄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은 어머니의 돌봄만이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동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이성의 부모와의 관계보다 자녀의 우울에 더 큰 상관을 보인 것은 동성 부모가 보호해 주는 것이 자녀가 적응을 잘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인 것으로 입증되었다(이은희, 1999).

따라서, 심리적 우울이 갖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영향력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녀의 독립과 노년의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노년 부모와 미혼성인자녀사이의 형성될 수 있는 정서적 상호작용에 의해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 우울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내용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미혼성인자녀와 중노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혼성인자녀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가족형태, 종교에 관한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노년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결혼상태, 연령, 최종학력으로 구성하여 총 10문항으로 작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분화척도

부모-자녀 분화척도(PCDS: Parent-Child Differentiation Scale)는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10문항의 연결성(친밀성)척도와 10문항의 분리성(자율성)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가족체계이론과 정상가족 기능과 관련된 기존의 측정도구(PAFS-Q, FACES II, DIFS 등)들로부터 추출되어진 것들이다. 연결성 문항의 예로 “나는 가끔(아버지, 어머니)와 대화와 오락의 시간을 함께 한다.”, “나는(아버지, 어머니)와 가깝다고 느낀다.”, “나의 사적인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아버지, 어머니)와 의논하겠다.” 등이 있다. 한편 분리성 문항의 예로는 “(아버지, 어머니)는 종종 나의 성격의 어떤 면을 바꾸려고 애쓰신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견해가(아버지, 어머니)와 다르더라도 나의 견해를 존중한다.” 등이다.

점수 결과 해석에 있어서 높은 점수의 분포는 부모와의 연결성(친밀성), 분리성(자율성)이 높은 것을 뜻하며, 이는 보다 유연하고 상호보완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낮은 분포의 경우 부모와의 연결성(친밀성), 분리성(자율성)이 이뤄지지 않아 밀착된 관계성을 보이며, 상호 의존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성을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가 .82 ~ .92까지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전영주, 1998),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가 .93으로 나타났다.

(2) 가족 정서 과다관여 및 비난 척도

가족 정서 과다관여 및 비난척도(FEICS: Family Emotional over Involvement and Criticism Scale)는 Brown과 그의 동료들(1972)이 제안한 표현된 정서의 핵심 개념으로 비난과 정서적 과다관여의 지각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표현된 정서는 가족이 표현하는 비난(criticism), 적대감(hostility), 온정(warmth), 긍정적 발언(positive remarks), 정서적 과다관여(emotional over involvement)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개념 중 비난과 정서적 과다관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본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Leff & Vaughn, 1985).

- ① 비난(criticism) :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비판적 진술의 발언 횟수로, 진술의 내용이나 목소리에 성격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 ② 정서적 과다관여(emotional over involvement) : 개인 안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과장된 정서적 반응으로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행동, 극단적인 과잉보호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표현된 정서의 핵심 하위 5가지 개념 중 2가지 개념으로 구

성된 FEICS는 가족 내 표현 정서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Shields, Franks, Harp, McDaniel, Camberwell, 1992)로 비난(criticism) 7문항과 정서적인 과다관여(emotional over involvement) 7문항의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언제나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과다관여 문항의 예로 “가족 중 누가 화나 있으면 나도 화가 난다.”,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가족들도 기분이 상한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느끼는지 나의 가족들은 안다.” 등이다. 한편 비난 문항의 예로는 “나의 가족은 나의 친구에 대해 흠을 잡는다.”, “나의 가족은 내가 돈 쓰는데 대해 불만이다.”, “내가 하는 일에 조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족은 그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등이다. 결과 해석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점수 분포는 가족 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질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서 과다관여 및 비난척도(FEICS: Family Emotional over Involvement and Criticism Scale)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본래의 척도를 토대로 비난 4문항과 정서적 과다관여 6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총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가족학 분야 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 검사를 받아 구성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3으로 나타났다.

(3) 우울(Depression)

Radloff(1997)의 우울척도(CED-S: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Mood Scale)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 한 신승철 등(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조맹제·김계희(1993)의 [CED-S 한국어판]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없었다’를 1점으로, ‘한두 번 그랬다’, ‘자주 그랬다’, ‘매일 그랬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20문항을(박정희, 1999)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 15문항만을 사용하여 가족학 분야 전문가의 안면타당도 검사가 이뤄진 후 구성된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미혼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적령기에 해당되는 30대의 연령층으로 아직 미혼의 상태에서 그들의 부모와 맺게 되는 정서체계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특정 연령에 해당되는 30대 이상만을 표본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 7월 14일~7월 21일까지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에 의해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한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

검증과 영역별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은 문항은 수정 및 제외되었다.

본 조사는 2003년 8월22일부터 9월2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유의 추출법(purposive sampling)으로 실시되었다. 총 31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최종 29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부실 기재되거나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응답자료 등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설문지 33부를 제외한 총 277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 표 1 > 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35세 이전의 미혼성인자녀들로 비교적 학력수준은 높으며,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고 가족 형태는 부모와 본인으로 구성된 형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미혼성인자녀들의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연령이 60대, 어머니의 경우 45세~50대가 많았으며, 학력수준은 고졸이상이 아버지의 경우 약 73%이고, 어머니의 경우 약 58%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7%의 중노년 부부가 혼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표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성별	남자	142	51.3	연령	35세 이전	242	87.4	
	여자	135	48.7		35세 이후	35	12.6	
학력	고졸이하	32	11.6	부의 연령	50대	81	29.2	
	전문대졸	34	12.3		60대	159	57.4	
	대졸	162	58.5		70대	18	6.5	
	대학원 이상	48	17.3	모의 연령	46~50대	171	61.7	
직업	무직	17	6.1		60대	95	34.3	
	생산·서비스직	36	13.0		70대	7	2.5	
	사무직	176	63.5		부의 학력	초등졸	27	9.7
	관리직	7	2.5	중졸		40	14.4	
	전문직	41	14.8	고졸		117	42.2	
			대졸이상	85		30.7		
소득	100만원 이하	54	19.5	모의 학력	초등졸	44	15.9	
	200만원 이하	147	53.1		중졸	71	25.6	
	300만원 이하	61	22.0		고졸	116	41.9	
	301만원 이상	15	5.4		대졸이상	44	15.9	
가족 형태	조부모+부모+본인	30	10.8	부모의 결혼 형태	혼인상태	242	87.4	
	부모+본인	204	73.6		비혼인 상태	35	12.6	
	아버지+본인	6	2.2		종교	무교	116	41.9
	어머니+본인	28	10.1			불교	45	16.2
	친인척+본인	9	3.2	천주교		29	10.5	
			기독교	86		31.0		
합 계		277	100.0			277	100.0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분석방법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분화와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정서적 과다관여, 비난),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중년부모-미혼자녀의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정서적 과다관여, 비난), 우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노년 부모-미혼성인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정서적 과다관여, 비난)가 미혼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부모-자녀분화로 통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화점수의 통합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산 후 나눈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결성(친밀성), 분리성(자율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

IV. 결과 및 해석

1.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분화와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심리적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분석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분화와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정서적 과다관여, 비난), 심리적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 표 2 > 와 같다.

아버지-미혼성인자녀분화의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중간 값 이상인 67.10점(SD = 10.75, 점수범위 20~10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미혼성인자녀분화의 전체 평균값도 100점 만점의 중간 값 이상인 70.82점(SD = 9.88, 점수범위 20~100)으로 전반적인 부모-자녀분화의 평균값은 절반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의 평균은 32.9점(SD = 4.27, 점수범위 10~50점)이며, 우울은 15~60점의 점수범위 중 평균 29.71점(SD = 6.65)으로 중간 값 보다 적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 표 2 >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

변인	N	M	점수범위	SD
부모-자녀분화 (아버지-미혼성인자녀분화)	272	67.10	20~100	10.75
(어머니-미혼성인자녀분화)	271	70.82	20~100	9.88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정서적 과다관여, 비난)	277	32.90	10~50	4.27
우울	277	29.71	15~60	6.65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중노년 부모-미혼성인 자녀의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심리적 우울의 차이 검증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중년부모-미혼성인 자녀의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정서적 과다관여, 비난), 심리적 우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미혼성인 자녀의 성별, 학력수준, 소득, 가족형태, 아버지의 연령과 학력, 부모의 결혼형태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혼성인 자녀의 성별 중 남녀 모두 아버지와 분화에 있어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혼성인 자녀 남자의 경우 68.23, 여자 65.89로 성별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아버지와 분화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hehan & Dwyer, 1989). 이러한 결과는 성인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등이 부모와의 관계나 그들의 우울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전영주(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에 전영주(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성인 자녀가 가족 밖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부모-성인 자녀간의 분화수준과 그들의 우울증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밖에서 경험하는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를 다루지 않고 부모자녀간의 정서체계 관계성만을 다룬 차이점으로 인해 선행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분화, 어머니와의 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우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인 집단과 대학원 이상인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반대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의 정도는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집단으로 비교하여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력수준과 부모와 자녀관계의 분화와 우울의 차이를 나타낸 선행 연구결과들(권석만, 1996; 김순기, 2001)과 맥락을 같이 한다.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분화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성인 자녀의 우울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조소연, 2001).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본인이 함께 사는 집단이 그 밖의 집단(조부모 + 부모 + 본인, 부모 + 본인, 어머니 + 본인, 친인척 + 본인)인 경우보다 아버지와 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에서는 어머니와 본인인 집단과 친인척과 본인인 집단이 그 밖의 집단(조부모 + 본인 + 본인, 친인척 + 본인, 부모 + 본인)인 경우보다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서적인 연대가 더 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내 표현된 정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활동 참여보다는 가족중심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므로,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아울러 전통적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관념 때문에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보다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에게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와 미혼성인 자녀의 분화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은 중졸과 고졸인 집단보다, 중졸과 고졸인 집단은 초등졸인 집단보다 아버지와 미혼성인 자녀와의 분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결혼형태를 살펴보면, 결혼을 유지하는 혼인상태의 경우 부모와의 분화수준이 높고,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비 혼인 상태를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를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와의 낮은 분화수준을 보이며, 미혼성인 자녀의 우울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자녀관계에서 표현된 정서가 높기 때문에 분화 수준은 높아지며, 우울은 낮게 나타난 차지연(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미혼성인 자녀의 성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아버지와 분화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자녀분화에 있어서는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형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혼인상태가 유지될 때 아버지와 분화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분화수준은 미혼성인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혼인상태가 유지될 때 어머니와의 분화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내 표현된 정서는 미혼성인 자녀의 학력수준은 높고,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 때,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심리적 우울의 차이

변인	분류	父-미혼성인자녀의 분화			母-미혼성인자녀의 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우울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남자	68.23	10.42		70.91	9.56		32.57	4.11		29.54	6.59	
	여자	65.89	11.00		70.72	10.25		33.25	4.23		29.90	6.74	
	t값		1.80*			.15			-.133			-.45	
미혼성인 자녀의 학력	고졸이하	63.44	11.42	A	67.77	9.38	A	30.94	3.95	A	33.31	7.63	A
	전문대졸	64.03	10.02	A	68.42	9.44	A	32.00	4.19	B	31.03	6.30	A
	대졸	67.74	10.40	B	71.11	9.75	B	33.26	4.28	B	28.70	5.90	B
	대학원 이상	69.92	10.72	B	73.92	9.86	B	33.85	3.88	B	29.67	7.76	B
	F값		3.52**			3.37**			4.13**			5.03**	
직업	무직	67.00	12.70		68.29	13.19		32.59	4.73		30.53	5.47	
	생산·서비스직	67.20	12.69		70.42	10.17		33.03	4.61		31.39	8.10	
	사무직	66.95	10.53		70.88	9.67		32.76	4.28		29.47	6.60	
	관리직	65.43	5.88		70.67	5.32		31.71	4.23		31.14	4.49	
	전문직	67.98	10.10		72.00	9.69		33.73	3.80		28.68	6.36	
	F값		.12			.44			.60			1.02	
소득	100만원 이하	66.83	12.95	A	69.93	11.65		32.50	5.05		31.15	7.37	A
	200만원 이하	65.83	10.14	AB	70.32	9.71		32.70	4.21		30.06	6.77	AB
	300만원 이하	69.30	9.89	B	71.98	8.70		33.28	3.54		27.59	5.29	B
	301만원 이상	71.71	9.29	C	74.07	9.00		34.80	4.35		29.73	6.32	C
	F값		2.42*			1.09			1.42			3.11*	
가족형태	조부모+부모+본인	68.50	10.14	B	70.47	9.67		32.87	4.76		29.37	7.10	A
	부모+본인	67.13	10.41	B	71.09	9.67		33.01	4.27		29.29	6.56	A
	아버지+본인	76.50	9.81	C	77.80	10.71		33.33	3.20		29.67	3.83	A
	어머니+본인	61.96	12.70	A	68.35	11.33		31.96	4.15		33.57	7.01	B
	친인척+본인	69.00	11.25	B	69.22	10.22		33.22	3.96		28.33	4.33	AB
F값		2.79*			1.14			.40			2.74*		
종교	무교	66.40	10.44		69.63	9.63		32.77	3.89		30.37	6.49	
	불교	68.62	10.55		72.51	10.66		33.16	4.38		29.51	7.25	
	천주교	68.00	12.14		73.17	11.14		33.00	4.69		29.17	5.64	
	기독교	66.98	10.90		70.78	9.30		33.01	4.55		29.08	6.91	
	F값		.53			1.52			.11			.71	
미혼성인 자녀의 연령	35세 이전	66.97	10.63		70.70	9.77		32.71	4.28		29.74	6.71	
	35세 이후	68.00	11.69		71.71	10.72		34.20	4.06		29.51	6.40	
	t값		-.52			-.56			-.93			.19	
부(父)의 연령	50대	68.36	11.39		72.79	10.66		32.53	4.26	A	29.07	6.36	
	60대	67.07	10.29		70.24	9.39		33.51	4.57	AB	29.40	6.64	
	70대	66.61	11.39		70.94	10.42		34.56	4.13	B	29.72	4.92	
	F값		.45			1.78			2.61*			.11	
모(母)의 연령	46~50대	67.14	11.11		71.26	10.05		32.88	4.36		29.84	6.78	
	60대	66.72	10.03		69.78	9.65		32.96	4.24		29.37	6.65	
	70대	65.71	12.74		70.50	8.87		31.86	3.29		31.86	5.27	
	F값		.09			.67			.21			.51	
부(父)의 학력	초등졸	63.44	10.53	A	67.11	10.14	A	33.15	4.04		30.48	7.50	
	중졸	65.22	13.49	B	68.95	11.42	A	32.70	4.05		30.00	6.11	
	고졸	67.03	10.18	B	70.50	9.00	B	32.94	4.39		30.03	6.72	
	대졸이상	69.50	9.95	C	73.43	9.86	B	33.01	4.50		28.51	6.48	
	F값		2.88*			3.81**			.07			1.14	
모(母)의 학력	초등졸	66.09	10.56		69.64	10.18		33.11	4.36		28.93	6.98	
	중졸	65.80	12.08		69.60	9.39		32.52	3.96		29.66	5.59	
	고졸	67.34	10.32		70.90	10.00		33.21	4.24		30.31	7.11	
	대졸이상	69.42	9.87		73.75	9.86		32.50	4.82		29.11	6.86	
	F값		1.15			1.87			.55			.63	
부모의 결혼상태	혼인상태	67.80	10.27		71.44	9.70		33.03	4.35		29.22	6.34	
	비혼인 상태	61.43	12.90		66.30	10.34		31.97	3.58		33.19	7.80	
	t값		2.61*			2.82**			1.38			-3.27***	

*p < .05 **p < .01 ***p < .001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노년 부모-미혼성인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노년 부모-미혼성인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과정으로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결과 부모-자녀분화를 부모의 성별로 나누어 아버지-자녀분화와 어머니-자녀분화로 살펴보았으나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타나 부모-자녀분화로 합산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설명력이 17%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beta = .010, p < .01$), 부모-자녀분화($\beta = -.214, p < .05$) 순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차지연(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서적 과다관여만이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자

녀분화는 부적인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즉, 부모-자녀분화가 낮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영주(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현재의 부모-성인자녀간의 분화는 성인자녀의 우울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와의 분화와 가족 내 표현된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이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미혼성인자녀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의 개인적 특성은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성인자녀들이 자신들의 심리적 우울에 대한 지각이 높지 않게 나타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심리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노년 부모와 30대 이상의 미혼성인자녀사이의 정서체계를 부모-자녀분화와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을 통해 30대 미혼성인자녀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우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분화와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 심리적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분화는 아버지와 미혼성인자녀, 어머니와 미혼성인자녀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100점 만점에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는 평균 67.10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70.82점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은 50점 만점에 32.90점으로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정서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60점 만점에 29.71점으로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 우울 상태가 약 30점에 달하는 수준의 정서 경험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중노년 부모-미혼성인자녀의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심리적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와 미혼성인자녀의 분화는 성별, 학력, 소득, 가족형태, 아버지의 학력수준, 부모의 결혼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와 미혼성인자녀의 분화는 자녀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수준, 부모의 결혼형태로 나타났다. 남녀 미혼성인자녀 모두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와의 분화에 있어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 어머니 양쪽에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는 미혼성인자녀의 학력수준(부분화 F

<표 4> 심리적 우울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변인	B	β
성별(여자=1)	.38	.030
연령	.61	.030
학력	-.49	-.065
직업(전문직=1)	-1.04	-.057
소득	-.79	-.097
가족형태(부+자녀=1)	-1.00	-.077
종교(유=1)	4.18	.081
부모 결혼상태(기혼=1)	-.002	-.002
부 연령	-.002	-.001
부 연령	-.002	-.001
부모 학력	-.003	-.173
부모-자녀분화	-.002	-.214**
가족 내 표현된 정서 (정서적 과다관여, 비난)	-.320	.010**
Contant	49.92	
R ²	.17	
F값	4.00***	

*p < .05 **p < .01 ***p < .001

= 3.52** $p < .01$, 모분화 $F = 3.37^*$, $p < .05$),과 아버지의 학력(부분화 $F = 2.88^*$, $p < .05$, 모분화 $F = 3.81^{**}$, $p < .01$), 부모의 결혼형태(부분화 $t = 2.61^*$, $p < .05$, 모분화 $t = 2.82^{**}$, $p < .01$)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학력수준과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혼인상태가 유지될 때 부모와의 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의 경우 아버지와의 분화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어머니와의 분화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도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보다 치중되어 있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녀가 일정소득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경제적인 독립을 갖추는 시점부터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지닌 연결성 또는 분리성에 대한 분화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내 표현된 정서에서는 미혼성인자녀의 학력과 아버지의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성인자녀의 학력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높으며, 아버지의 연령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 중 아버지의 연령이 증가하면 자녀에게 갖는 표현된 정서적 과다관여나 비난이 증가하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기대되는 기준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와의 분화와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는 심리적 우울의 정서와 관련한 변인으로 학력, 소득, 가족형태, 부모의 결혼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성인자녀의 학력수준은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20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과 어머니와 본인이 함께 사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형태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었으나, 어머니와 본인만이 함께 사는 경우 자녀의 심리적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완벽한 양부모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성의 부모가 부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정서적, 사회적 영향이 전통적인 가부장제 잔존으로 인하여 특히, 한 부모 중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 영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모-자녀분화,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미혼성인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과 부모-자녀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인들이 갖는 설명력은 총 17% 였다. 즉, 부모-자녀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적 과다관여와 비난이 높을수록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게 되는 심리적 우울감은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분화수준이 낮은 경우, 과도한 밀착과 유연하지 못한 분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역기능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구조가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노년 부모-미혼성인자녀의 가족 내 표현되는 정서체계 관계를 정서적 과

다관여와 비난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분화정도와 정서적인 표현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긍정적인 정서 표현의 경험과 향상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표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30대 미혼성인자녀 응답자의 지역적인 제한과 연령의 범위를 30대로 한정지어 조사한 결과 30대가 갖는 사회적·심리적 발달과정과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가족 외적인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다루어 심리적 정서의 근원적인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 변화의 한 양상으로서 만혼의 증가 추세와 자발적인 독신의 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30대 연령층이 또 다른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일반화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둘째, 중노년 부모와 미혼성인자녀의 분화 및 가족 내 표현된 정서를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관점에서만 살펴보았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중노년 부모와 미혼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양방향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자녀관계의 전반적 정서적 경향으로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기존의 가족 내 표현된 정서에 관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특수성이 배제되어 정확한 정서 표현성에 대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가족간에 표현되어지는 정서적인 문항들이 국내 사회문화적인 정서와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정서적 경험의 특수성을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다. 외국에서 개발되었거나 한 연구자가 사용한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 주제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표현이 국내 사정에 맞게 조사되어 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에 적합한 도구와 함께 심층적인 질문문항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가족구조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상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있어 구조화된 양적 연구는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국내에서 이뤄진 선행 연구들의 동향에서도,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들의 연구방법이 양적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윤기영, 2002)는 보고를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국내 여러 학문 분야의 다양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며, 선행연구들의 학문적 배경이 다소 자연과학적 성향인 점을 비추어 본다면 보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회·문화·정책적인 배경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노년 부모와 미혼성인자녀의 보다 유연한 분화와 가족 내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서

의 경험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변인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갈등을 겪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을 위한 치료적, 상담적 개입은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관계향상 차원의 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이 적용되어 진다면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보다 효과적인 도움이 예상되어 향후 중요한 연구로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04일

【참 고 문 헌】

- 권석만(1996). 우울과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5(1), 13-38.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0).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결속과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결속과 갈등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고찰. *경희대학교고향(高鳳)논집*, 27, 65-76.
-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 성인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준화(1999). 역기능적 가족구조가 자기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승철 · 김만권 · 윤관수 · 김진학 · 이명선 · 문수재 · 이민준 · 이호영 · 유계준(1991). 한국에서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 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화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30, 752-765.
- 신효식 · 이신숙 · 이윤정(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 연구*, 4, 41-56.
- 연규일(1992). 가족환경이 정신분열증 환자 재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연구논총*, 49(1), 109-118.
- 오동재 · 전성일 · 장환일(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장정신체검사용 정신과 집단선별검사 개발을 위한 연구(5). *신경정신의학*, 32(6), 896-903.
- 윤기영(2002).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발전*, 21(1), 169-197.
- 이은희(1999).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우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일 · 황석현 · 한정원 · 민경환(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1), 117-140.
- 이중훈(1995). 한국형 자가 평가 우울척도의 개발. *영남의대학술지*, 12(2), 292-305.
- 장명진(1989). 정신과 퇴원환자의 스트레스와 가족의 정서표현이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성일 · 이정호 · 이기철 · 최영민(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행동 장애에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7(1), 34-43.
- 전승환(1998).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우울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1996). *Intergenerational dynamics in three-generation families : adult's emotional tie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Purdue Univ.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자녀의 우울증.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정영철 · 정애자 · 황익근(1988). 정신분열증 환자의 친척에서 보인 표출된 감정. *신경정신의학*, 27(3), 535-541.
- 정운석(1998).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의 표출된 감정이 환자의 재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신정*.
- 조맹제, 김계희(1993). 主要憂鬱症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소연(2001). 부모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2001). 가족분화와 이성교제 커플의 정서적 역동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지연(1999). 가족 내 표현된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남 · 최외선(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 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31-42.
- 최외선 · 백양희 · 이미옥(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7-40.
- 통계청(2001). 2001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 Allison, M. D. & Sabatelli, R. M.(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11-16.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nderson, S. A., Sabatelli, R. M.(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2-50.
- Anderson, S. A. & Sabatelli, R. M.(1990).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 Family Therapy*, 20, 89-101.
- Bagarozzi, D. A. & Anderson, S. A.(1989). Personal, marital, and family myths: Theoretical formulation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W. W. Norton.
- Beck, A. R.(1978). *Cognitive therapy and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ngtson, V. L. & Robert, R. E. L.(1993). Relationship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4), 263-277.
- Bograd, M.(1988). Enmeshment, fusion, or relatedness?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Review*, 42, 65-80.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own, G. W., Birley, J. L. T. & Wing, J. K.(1972). Influence of family life on the course of schizophrenic disorders: a replic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1, 241-258.
- Chun, Y. J. & MacDermid, S. M.(1997). Perceptions of family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451-462.
- Cooney, T.(2000). Parent child relations across adulthood. In R. Milardo & S. Duck(Eds.), *Families as relationships (39-59)*, London: Wiley.
- Friedman, E. H.(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and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Frijda, N. H.(1988). The law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3, 349-358.
- Gavazzi, S. M. & Sabatelli, R. M.(1990). Family System Dynamics, the Individuation Proces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4), 500-519.
- Hagestad, G. O.(1987).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trends and gaps in past research In. J. B. Lancaster, J. Altmann A. S. Rpsso, & L. R. Sherrod (Eds.). *Parenting across the life span*, NY: Aldine De Gruyter.
- Hubschmid, T. & Zemp, M.(1989). Interactions in high and low-expressed emotion famili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4, 113-119.
- King, L. A. & Emmons, R. A.(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ng, A. M., Smith, D. A. & Neale, J. M.(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Knudson-Martin, C.(1994). The female voice applications to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1), 35-46.
- Kuipers, L., Sturgeon, D., Berkowitz, R., et al.(1983). Characteristics of expressed emotion: its relationship to speech and looking in schizophrenic pati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speech and looking in schizophrenic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257-264.
- Lavee, Y. McCubbin, H. I. & Olson, D. H.(1987). The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transitions on family functioning an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57-873.
- Leff, J. & Vaughn. C.(1985). *Expressed Emotion in Families: Its Significance for Mental Illness*. New York: Guilford.
- Parker, G.(1983). Parental 'affection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risk factor delineate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9), 956-960.
- Parker, G.(1979a).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on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earson, J. L., Cowan, P. A., Cowan, C. P. & Cohn, D. A. (1993). Adult attachment and adult child-older parent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606-613.
- Richards, L. K., Bengtson, V. L., & Miller, R. B.(1989). The "generation in the middle": perception of changes in adult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K. Kreppner, & R. M. Lerner(Eds.), *Family systems and life-span development*. 341-366.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cations.
- Rossi, A. S. & Rossi, P. H.(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 Sabatelli, R. M. & Anderson, S. A.(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hehan, C. L., & Dwyer, J. W.(1989). Parent-child exchanges in the middle years: attachment and autonomy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J. A. Mancini(Eds.).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p. 99-113)*, MS: Lexington Books.
- Shott, S.(1979). Emotion and social life: A symbolic interactionist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1317-1334.
- Strachan, A. M., Goldstein, M. J. & Miklowitz, D. J.(1986). Do relatives express expressed emotion? In Goldstein, M. J., Hand, I. & Hahlweg, K(Eds.). *Treatment of schizophrenia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52-58)*, Berlin: Springer-Verlag.
- Sutor, J. J. & Pillemer, K.(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037-1047.

- Szmukler, G. I., Bcrkowitz, R., Eisler, I., et al.(1987). Expressed emotion in individual and family settings: a comparative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iry*, 151, 174-178.
- Umberson, D.(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64-674.
- Valone, K, Norton, J. P., Goldstein, M. J., et al.(1983). Parental expressed emotion and affective style in an adolescent sample at risk for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399-407.
- Vaughn, C. E. & Leff, J. P.(1976). Influence of family and social factors on the course of psychiatric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125-137.
- Weissman, M. M. & Klerman, G. L.(1981). Sex difference and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In E. Howell & Basyes (Eds.), *Women and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